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안 연구

권 순 애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교육권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히 학습을 통한 배움의 욕구 충족을 뛰어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등 장애인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존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경열, 2012).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성 및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자원 획득에 있어 중요한 삶의 기술이 되고 있으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배제의 주요 요인이 되며,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시설 수, 강좌 수 등 여러 측면에서 평생교육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김경열, 2015). 특히,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지은, 2019).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도 비정규 교육과정, 예를 들면 학교 이외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교육, 지역사회자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개설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학령기 특수교육 범위를 뛰어넘어 학령기 이후의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전제되어야 장애인 평생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 활성화 못지않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평생교육 이용자가 되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여부, 참여이유, 미참여 이유 등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장애

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평생교육 제공현황을 조사하고, 초점집단 인터뷰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슈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정리를 시도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사업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범위 정리를 시도한다.

셋째,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평생교육 참여자인 장애인과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근거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관련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운영방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1)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였다.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과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평생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조항 검토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기본 권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교육부 내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신설,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각종 정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9)을 검토하였다.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정책적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는데,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조사하였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 의거하여 경남에 존재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2차 자료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2)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현황 조사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장애인 자립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의 기여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며, 조사기간은 2022년 8월~10월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대면 설문조사였으며, 장애인 당사자 직접 응답 방식과 직접 응답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한 대리 응답 방식을 혼합으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① 평생교육 참여 경험 여부, ②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따른 참여경험, 참여기간, 참여 프로그램 수, 참여만족도, 참여했던 평생교육기관 유형, ④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전체, 영역별) 참여 의향, ⑤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자립생활 도움 정도였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수행 현황 및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설문내용은 ①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개설 수, 수강인원 및 참여대상,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개설 시간대, 학습비 총액 및 부담정도, ②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비장애인 참여여부, ③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인식, ④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미참여) 이유, 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⑥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기능에 대한 실행도와 중요도였다.

셋째, 실증적 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 FGI)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집단은 경남 소재 장애인평생학교 및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사업 담당자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①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②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교육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③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평생학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평생교육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④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⑤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요인, ⑥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현 기능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3)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방안 제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및 중앙정부 정책,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현황, 경남 평생교육 이용자인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 담당자 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운영방안 및 단기·중장기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Literature Study)

본 연구의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 법적 근거,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은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관련 법령, 정책 보고서, 2차 자료집 등이 주된 자료 원천이 되었다.

2) 설문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기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초점집단인터뷰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 행정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교육청, (재)경상남도평생교육에서 발표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전달체계를 파악하고, 일선 행정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 안내되고 있는 사업 운영 책자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II. 연구 결과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슈를 기반으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남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7%이지만, 이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 비율은 장애인 인구 대비 2%에 불과하였다. 장애인평생학교는 1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274개소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업 혹은 평생교육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총 136개소, 경남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의 49.6%에 해당되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장애인들의 직업 및 개인적 삶 영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 참여 비율은 저조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충분한 평생교육사업이 지역에 존재하는지 ‘충분성’ (sufficiency)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평생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사업의 규모는 총 329개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한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참여자 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적다고 보여진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관 현황을 기반으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들 중 55.1%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미인지가 50.9%로 나타났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요 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평생학교)과 장애인복지관이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자기 관리, 일상생활, 지역사회 이용, 낮 시간 활동 측면에서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장애인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인지적·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평생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설 증대이다.

셋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조사(2020), 경남장애인복지관 조사(2022), 본 연구의 실태조사(2022) 등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제공기관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정도 및 장애인 특성·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조건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우수강사 확보,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조사(2020), 경남장애인복지관 조사(2022), 본 연구의 실태조사(2022) 등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제공기관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정도 및 장애인 특성·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조건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우수강사 확보,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제시하였다.

<표 1> 관련 조사, 이슈에 따른 주요 키워드

구분	현황	주요 키워드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 : 5.7%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 188,127명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비율 : 약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평생학교 10개소 59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274개소 270개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업(유사사업 포함) 수행 기관(136개소, 전체 4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22개소 - 주간보호시설 53개소 - 점자도서관 1개소 - 직업재활시설 6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참여 경험 : 55.1%¹⁾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 평생교육에 대한 미인지 50.9% 평생교육 주이용기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도움 정도 : 자기관리, 일상생활, 지역사회 이용, 낮 시간 활동 등에서 유용한 도움이 있다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장애인평생학교와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설 증대

1) 본 연구에서 수행된 조사결과

〈표 2〉 관련 조사, 이슈에 따른 주요 키워드 - 계속 -

구분	현황	주요 키워드
제공기관 현황	<p>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조사(2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재정지원 원천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수강자 특성 및 요구 다양성, 학습공간 부족, 예산 부족 - 장애인복지시설 : 수강자 특성 및 요구 다양성, 우수 강사 확보의 곤란, 장애인 수강자 모집 어려움 ● 프로그램 운영 확대 희망 영역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p>2) 경남장애인복지관 조사(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이용 목적 : 취미·여가활동, 다양한 분야의 배움 ● 평생교육사업 어려움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족,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부족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예산지원, 우수강사 확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p>3) 본 조사(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운영형태 : 무료, 장애인만 대상 ● 평생교육 참여 결정요인 : 이동지원,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종류 ●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요인 : 인력 전문성 부족,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부족 ● 정부의 노력 : 예산지원,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배치 ● 거점기관 기능 중요도(중요 순)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종사자 및 담당자 연수 ● 거점기관 기능 수행정도(낮은 순) : 실무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정책 개발 및 제안,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어려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개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특성 및 요구 다양성) - 예산 및 강사 확보 - 평생교육 학습공간 확보

〈표 3〉 관련 조사, 이슈에 따른 주요 키워드 - 계속 -

구분	현황	주요 키워드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 및 특징에 맞추어 개별화된 관리 및 네트워킹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거점기관이 해 줘야 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컨설팅 필요(신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수행기관을 고려한 거점기관 역할 수행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필요
장애인평생교육관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상호 이해 및 합의 미도출 ●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간의 역할 모호성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간의 중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개별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 ●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넷째,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업무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점기관의 기능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업무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원, 종사자 및 담당자 연수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업무들은 실무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정책 개발 및 제안, 기관 운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어려움 해소로 장애인 개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 및 강사 확보, 평생교육 학습 공간 확보이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평생학교 종사자 간의 의견이 상이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욕구조사를 수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평생교육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장애인평생학교는 말 그대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해 존재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장애인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평생교

육시설이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의 개별화된 욕구에 맞추어 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이해의 합의 미도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수행기관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간의 역할 모호성, 장애인 평생교육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간의 중첩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을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질적 제고 및 활성화’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개별 기관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Ⅲ.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방안(안)

1) 운영방향

본 연구는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지향성과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림 IV-3>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안 마련의 기본 원칙

가장 우선되는 것은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장애유형 및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는 것,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들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 과정에서 경남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한 정책적 근거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내용(’19.10.24. 시행)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 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연수,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20)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의 공동사업* 추진
-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연수,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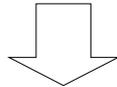
<p>평생교육법 개정 (’19.10.24. 시행)</p>	<p>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앞선 정책을 반영한다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③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④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실증조사 및 초점집단 인터뷰 조사 결과, 현재 경남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추가·조정될 기능이 존재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지향성에 기반하여 도출된 4가지 역할 이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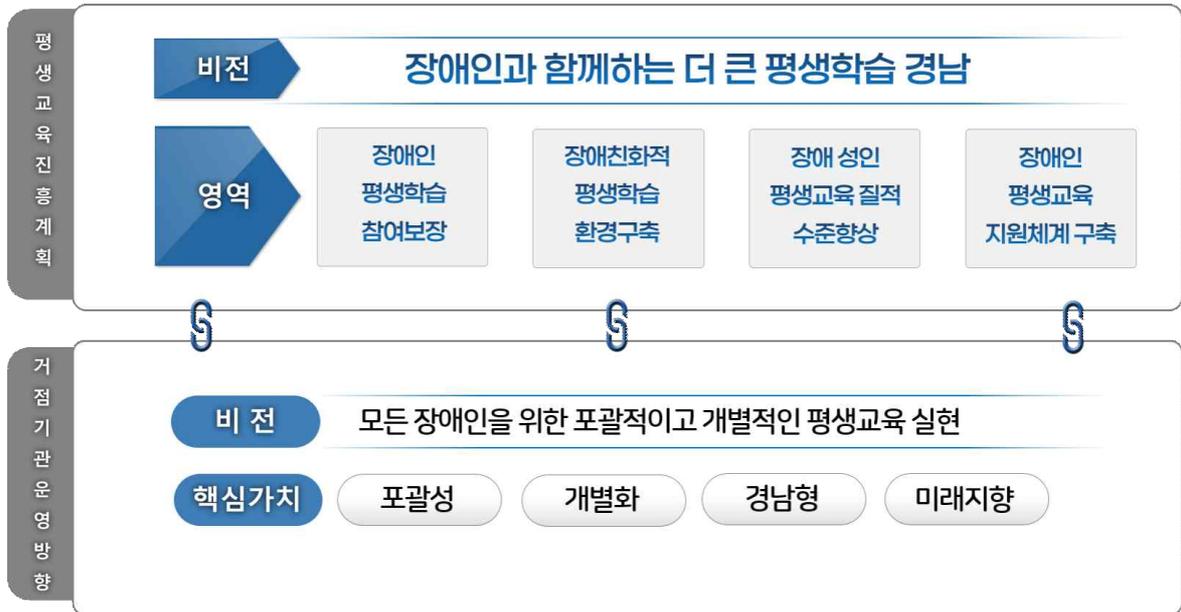
구분	실증조사	초점집단인터뷰	현 거점기관 기능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개별 맞춤형 평생교육 개발 • 관련 예산 확보 • 우수 강사 확보 • 평생교육 학습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개별 맞춤형 평생교육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및 연구사업 • 신생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관 컨설팅)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추가)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연계 서비스 제공 (추가)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 (추가)

<그림 2>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역할 추가·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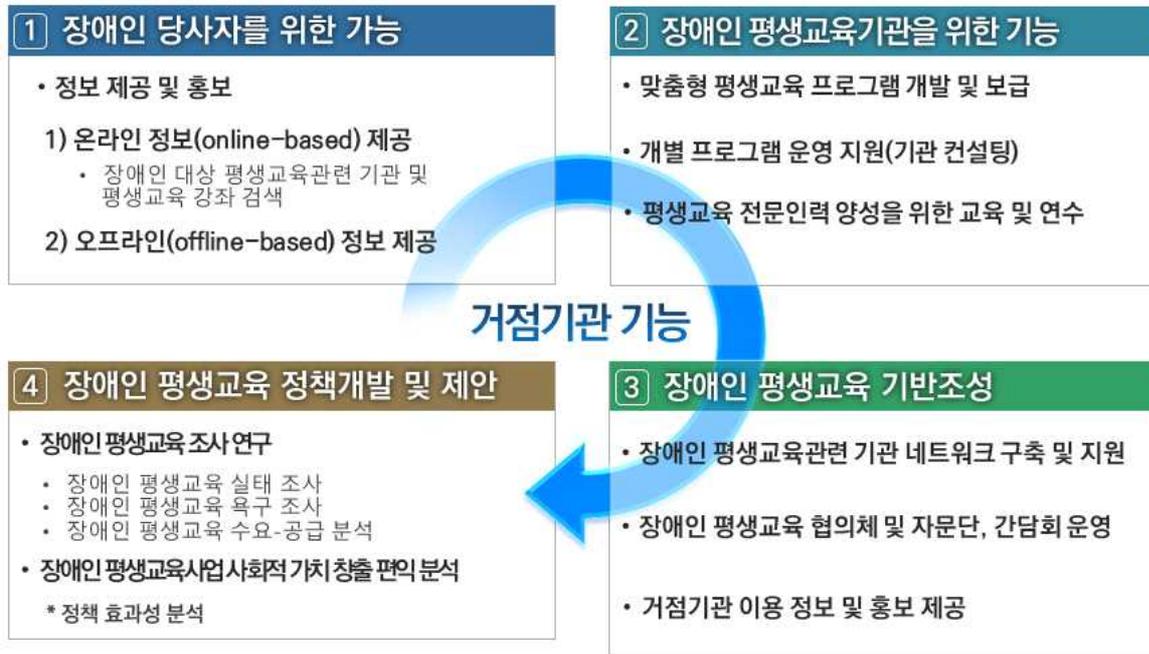
이러한 사업들의 목적은 「2022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제시된 비전 “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큰 평생학습 경남”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영역을 고도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보장,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현, 장애인 평생교육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된다. 해당 사업들은 장애인 개별 당사자 및 개별 기관에 단순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 관점에서, 평생교육 제공기관에게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거점기관 단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기관과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방안은 <그림 IV-5>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그림 3>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운영 방향

2) 주요 역할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주된 기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증조사 결과, 초점 집단인터뷰 결과, 현 거점기관 기능 분석 등을 종합하여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기능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서비스 홍보이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장애인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관 컨설팅),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이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이다.



〈그림 4〉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

(1)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기능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생교육사업은 개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있더라도 자신이 이용하던 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정보제공 및 홍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서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의 중복성 문제, 기존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말 그대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서비스를 파악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제공은 단순히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제공기관과 사업내용(일시, 장소, 참여자격조건, 비용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특성

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 접근성을 높이는데 매우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초상담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근거자료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서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남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평생학교,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들 개별 단위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장애인 및 그들 가족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부재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ndamoa.or.kr>)-다모아정보망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강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대안은 현재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이곳에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

장애인 및 그들 가족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형태의 정보제공은 기관 및 정책 홍보의 기능도 겸할 수 있다.

- 온라인 정보 제공

- 가장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사이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곳의 정보는 거점기관 이용 방법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대상과 지역에 따라 잘 정리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면, 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내용, 이용시간, 참여 가능한 대상, 비용,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 모임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계도 필요하다.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점기관이 하는 정보제공 및 자조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거점기관이 수집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정보 제공

- 오프라인 정보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쇄물을 통한 정보 전달이다. 이것은 온라인 정보 제공 방법보다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인쇄물이 중점적으로 배포되게 되는 시·군청이나 주민센터의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홍보물이 많아 정보 전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 관련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위한 기능

①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장애인 개별화 지원계획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집단화하여 접근하지 않고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개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 매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구분되어 다양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특정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 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확실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발간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 6대 영역에 맞추어 장애유형별(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넘어선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욕구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평생학교 전문가 FGI에서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면서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서는 경남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한다.

② 개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관 컨설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평생학교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유사사업의 형태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고려한다면 개별 기관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 평생교육영역 6개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평생교육사업이 진행되지만, 앞서 조사된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대체로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학력보완교육, 시민참여교육은 비중이 약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업의 주제와 강사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이를 위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서 이에 대한 개별적인 기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자문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자문단을 통한 직접 기관 컨설팅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진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수집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공유·확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신설기관이나 평생교육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하여 진행코자 하는 기관들은 관련 업무 수행경력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 있고, 정보 수집 및 획득에도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 신생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들 기관을 위한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자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이해 교육 • 평생교육사업 개발 및 운영방법 자문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각종 자원 연계 및 자문
자문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직접 컨설팅 •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자문단을 위한 컨설팅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학교 관련자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 전문 학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사회복지, 평생교육)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는 교사 및 강사를 포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발·운영·평가하는 기획 인력도 포함된다.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요가 잠재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통합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는데 현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자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애인 유형과 정도도 다양할뿐더러 장애특성도 각 유형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섬세한 교육프로그램 디자인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견지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용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에 특화된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장애인 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함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더 구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 장애인들의 욕구 변화에 따른 욕구기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 등을 심화과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책 제언

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경남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역량을 응집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남은 지역별로 장애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업의 자원과 프로그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어려움 또한 각기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거점기관이 경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체계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 국가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교육담당관, 경상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민간 기관 및 단체 :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평생교육시설(비장애인 대상) 등
- 기타 지역 자원: 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별 형평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¹⁾.

- 동부권 네트워크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서부권 네트워크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남부권 네트워크 : 창원시,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북부권 네트워크 : 거창군, 창녕군, 함양군, 의령군,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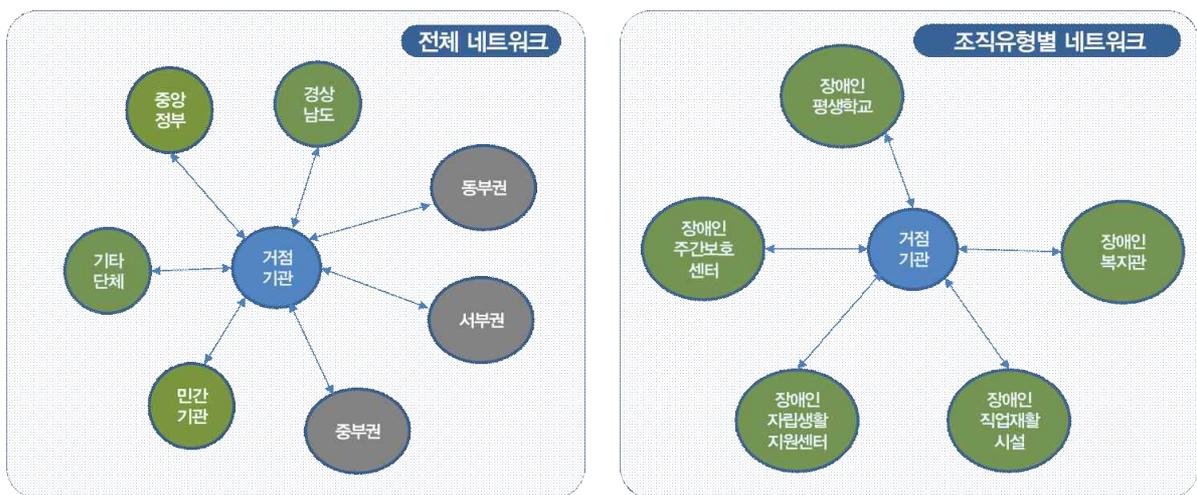
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면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권역 구분은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일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서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적, 물적 자원 등을 포함)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평생교육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기능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보았듯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은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고, 어떠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거점기관에서는 기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관 기관에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한 서비스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한 종사자 교육과 연수, 사업 컨설팅, 각종 조사연구 결과 공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관계자 교류의 장을 통해 협조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과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5>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나)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및 자문단, 간담회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인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균형있게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원회와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사업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각종 관계 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좌담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 : 법적 근거별 구분하여 구성
 - 장애인평생학교 협의체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 협의체

-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자문단 구성 : 영역별 자문가능한 인력 풀 확보
 - 평생교육학을 중심으로 구성
 -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구성
 - 장애학을 중심으로 구성

다) 거점기관 이용 정보 및 홍보 제고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또한 기관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네트워크 구축 노력은 홍보의 일환이며, 홍보활동 또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포털사이트 서비스인 카페나 밴드, 블로그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SNS 계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홈페이지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구성도 필요하며, 개별 평생교육기관이 진행하는 평생교육사업을 공지할 수 있는 게시판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전략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촉진제가 되며, 정보수집 및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는 경상남도청, 18개 시·군청,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거점기관 홈페이지 경로가 노출되어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온라인 홍보의 보조적인 홍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정보검색 활동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해 필요하다. 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포스터, 리플렛, 소식지, 현수막, 전단지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등에 게시할 포스터나 주요 정보를 요약한 리플렛 제작은 필요하며, 소식지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나 메일링 서비스 등의 온라인 배포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인쇄물로 제작하는 방식이 병행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공문발송 등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은 대체로 전자공문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점기관에서 팩스와 이메일로만 홍보공문을 송달할 경우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볼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공문 시행과 관련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②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통계 및 정보는 한정적이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통계 및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조사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사가 미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조사 비중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7>에서 보듯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FGI에서 도출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 및 심층적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조사는 전국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어 경남 단위의 조사 결과나 원자료(raw data)에 접근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경남 특화 항목이 반영된 장애인 실태조사 혹은 평생교육 관련 별도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표본추출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표 4〉 장애인 관련 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기관	평생교육 관련 조사 내용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인부담금 •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률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발달장애인이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 종류 - 생활기술교육,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 (특별히 없음)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참여 현황(참여여부, 미참여이유, 참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기관, 참여빈도, 학비, 이동수단) •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 비율 •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 비율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희망 활동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현황 • 행정사무직원 현황 • 교·강사 현황 • 학습자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운영예산 현황 •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운 점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구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없음
장애통계 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없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별개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점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사로는 거점기관으로 연결된 상담이나 정보제공 내용 분석,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인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모아정보망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점기관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예를 들면, 각종 조사 결과, 전국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등)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 및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개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의 조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관 자료 활용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정보제공 상담 자료,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참여자 현황, 평생교육 신청자료, 평생교육 운영 현황 자료(사업계획서, 운영일지,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 자료분석을 실시한다. 이것은 일종의 내용분석(context analysis)인데, NVIVO, ATLAS-TI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텍스트를 양적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

- 설문조사(survey)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접적인 욕구를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서베이는 다년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종단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초점집단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조사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

- 2차 자료(secondary data) 활용 : 정부나 민간기관의 기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자료가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지역이나 인구 집단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준화된 수치이다(김영중, 2013).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회지표를 추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은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기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앞서 이루어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FGI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업무,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 및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 제안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내에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조사연구의 정례화, 지속적인 연구개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보급 및 성과 공유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주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기관 및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필요한 정책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우수한 연구 주제 제안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대안 및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중앙 관련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과 함께 평생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학습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와 운영 복잡성 때문에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장애인평생학교를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을 도모하는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 외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예를 들어, 장애인대학,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은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및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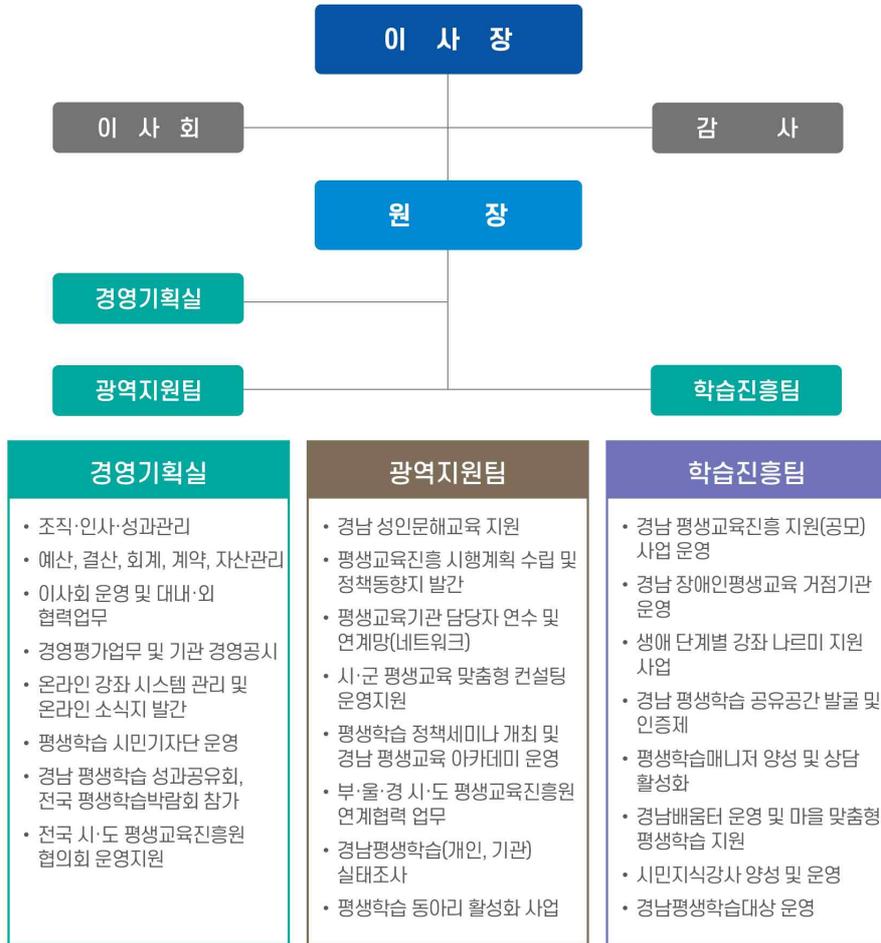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장애인만을 위한 대학 설립 및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의 차별과 비통합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개발(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확대 등)하거나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기관에 비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개설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인적 자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하는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조직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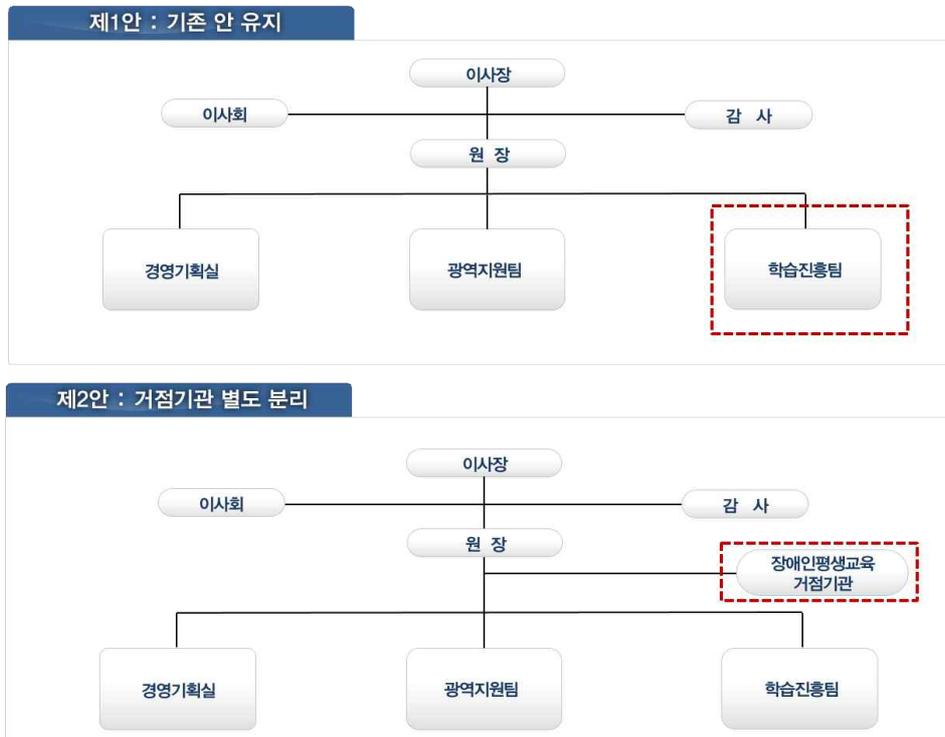
(1) 조직구성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도는 <그림 IV-9>와 같다. 현재 1실 2개 팀으로 나뉘어 있다. 1실은 경영기획실이며, 2개 팀은 광역지원팀, 학습진흥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광역지원팀은 주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동향지 발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및 연계망 관리, 시·군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운영지원, 경남평생학습(개인, 기관) 실태조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습지원팀은 경남 평생교육진흥 지원(공모) 사업 운영, 생애단계별 강좌나르미 지원사업, 경남 평생학습 공유공간 발굴 및 인증제, 경남배움터 운영 및 마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필요해 보인다. 당장 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현 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존 직제에서 분리된 별도의 센터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7〉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 개편(안)

현재 학습진흥팀에 속해 있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별도의 팀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된다면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팀장이 있어야 하며, 세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원도 충원해야 한다. 팀장과 팀원의 업무는 다음 <표 IV-8>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5〉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업무 분장표

직위	인원	주요업무
팀장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업무 총괄
팀원	최소 1명 최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 컨설팅)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연계 서비스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

팀원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관 컨설팅), ②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③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④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연구, ⑥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연계 서비스 제공, ⑦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제안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2) 운영방법

현재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이 사업을 지정받은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하나의 업무로 학습진흥팀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구 출현율 증가, 후천 장애인 인구비율 증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거점기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현재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팀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기관 확대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후 별도 분리(안)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운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표 IV-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방법에 대한 장·단점 비교

운영방법	구분	주요업무
기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력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조직 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조직 업무와 범위 안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점기관의 역할이 기존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거점기관의 기능 및 사업 확장에 있어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 - 거점기관 업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평생교육사업과의 불균형적인 업무구조를 가질 위험이 존재함
별도 팀(부서) 분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함 ●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성이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센터 셋팅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음 ● 기존 조직 내의 분리로 인한 초기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움

(3) 운영지원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과 충분한 예산 확보에 있다.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 우선 충분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예산은 3천만원(2022년 기준)으로 이들 예산은 주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및 교육, 실무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앞서 제시된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4) 단기·중장기 운영 방안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단계적 발전방안은 <그림 IV-11>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그림 8>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단계적 발전방안

(1) 도입기(2022년~2024년)

도입기는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기초적 토대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로부터 2020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초적인 실무 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경남 장애인평

생학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운영방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기관의 필요 및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컨설팅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발전기(2025년~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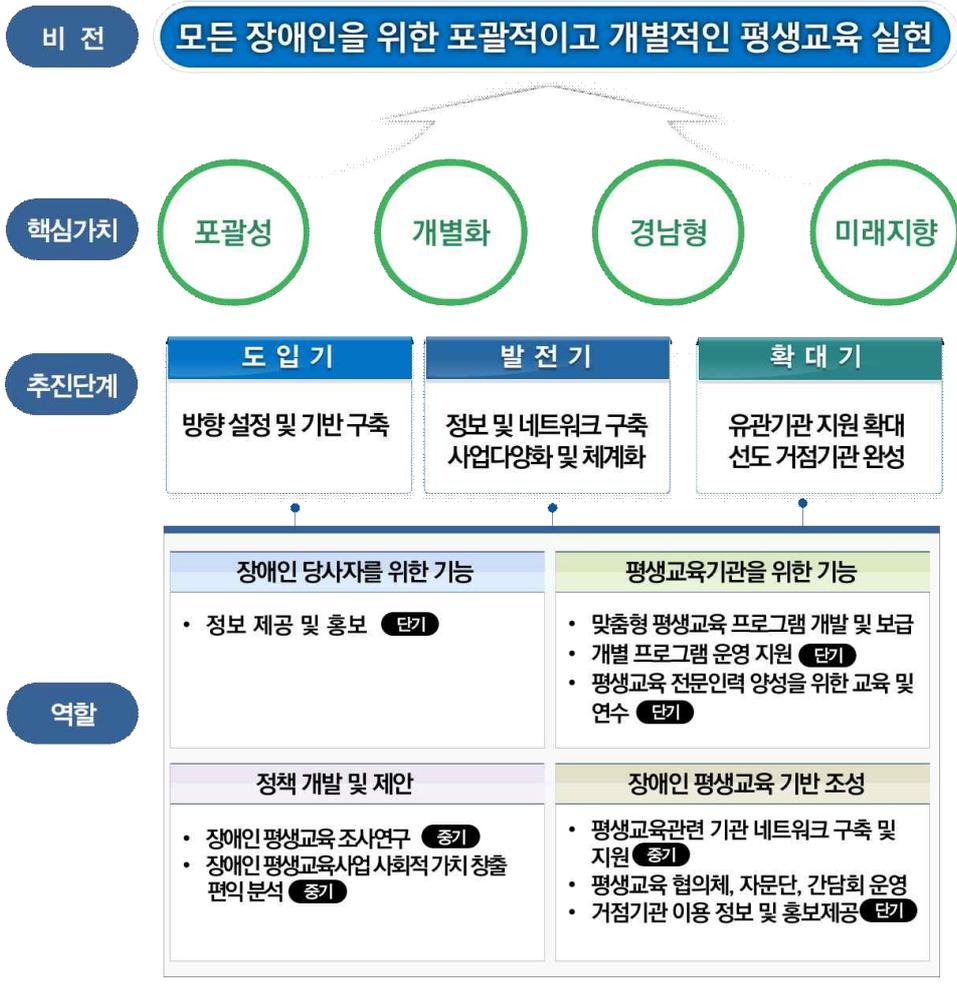
도입기 이후 발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정보제공 기능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경상남도, 각 시·군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유관기관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및 서비스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에는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확보하고 기관을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수집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때의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또한 도입기와 발전기를 거쳐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점기관의 사업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사업 내실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이다.

(3) 확대기(2028년~2031년)

도입기와 발전기를 거쳐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확대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때에는 보다 사업 다양화 및 체계화의 고도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남형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선도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역량이 높아져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의 사업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연대하여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하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들이 쌓일 때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선도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9> 경남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운영방안